

‘민주 vs 反민주’ 전선... 표심 잡기 총력전

시·도지사 후보들 지역 곳곳 누비며 지지 호소 강기정·김영록, ‘원팀’ 앞세워 현안 해결 약속 국힘·진보정당·무소속 “민주당 1당 독점 깨야”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광주·전남지역 6·1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출정식과 함께 첫 유세에 나서며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 반(反) 민주당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은 ‘원팀’을 앞세워 압도적 승리를 자신한 반면, 국민의힘·진보정당·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1당 독점을 깨자”며 표발을 다졌다.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5시30분 생활환경미화원·남광주해뜨는시장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선거운동 첫 일정을 함께 했다.

강 후보는 “민주당 원팀으로 광주군공항 이전, 반도제 특화단지 유치 등 광주의 최대 현안을 담당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일상의 민주주의가 시민 삶 곳곳에 뿌리내리고 살기 좋은 광주 만들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각화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첫 인사

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주 후보는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겠다”며 “민주·인권의 도시인 광주를 첨단 과학 선도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연주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서구 금호사거리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첫 유세에 나섰다. 장 후보는 “정의당으로 정치 교체를 이뤄달라”며 “기득권 정치 세력에 맞서 시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북구청 사거리 인사로 첫 유세에 들어갔다. 문 후보는 “변화 없는 광주에 실망한 청년들은 매년 광주를 떠나고 있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주엽 후보도 이날 오전 7시 첨단 우편집중국 택배노조원 인사를 통해 첫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4년을 선거운동 기간처럼 분초를 아껴가면서 현장을 누볐다”며 “민주당 1



광주시장 후보들 거리 유세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광주시장 후보들이 거리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기정·국민의힘 주기환·정의당 장연주·기본소득당 문현철·진보당 김주엽 후보)

당 독점을 끝내고 광주시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정당 진보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도 각 당의 전남지사 후보들이 지역 곳곳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목포역 광장에서 ‘행복캠프 출정식’을 겸한 첫 집중유세를 벌였다. 집중유세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김원이 국

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등 민주당 전남 서남권 후보들과 도민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 이후 정치 상황이 예상롭지 않다.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비서실에 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민주당의 위기고, 호남의 위기다. 호남이 바로 서야 한다.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김종식 후보 등을 함께

소개하며 “도정과 시·군정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전남 시장·군수 후보들의 당선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이날 별도 출정식 없이 오전 7시 목포 청호시장 유세를 시작으로 남악, 무안, 나주, 화순, 담양,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까지 각 지역을 1시간 단위로 이동하며 유세전을 펼쳤다.

진보당 민정기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여수산단 롯데캐미칼 공장 앞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첫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민 후보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진보당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오후엔 이경근 광양시원 후보 집중유세에서 지지 연설을 통해 “민주당 일색의 호남 정치를 바로 세우자”고 호소했다. /김재정·박선강기자

DJ센터, 5개 전시회 국비 확보...역대 최다

산업부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선정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에 모두 5개 주관전시회가 선정돼 국비 3억5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전시회 SWEET(7월6-8일) ▲국제그린카전시회(7월21-23일) ▲스타트업 경진대회 Splash(9월5-6일) ▲국제기후환경산업전(9월14-16일) ▲광주식품대전(10월13-16일) 등 5개 전시회다. 사업비는 주로 해외마케팅,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사용된다.

7월 개최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SWEET’는 해상풍력, 수상 태양광, ESS 등 그린뉴딜을 선도할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인다. 국내 최초 친환경차 전시회인 ‘국제그린카전시회’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기술 등 광주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9월에 열릴 스타트업 투자 전시 상담회인 ‘Splash’는 AI 기반의 Tech 산업 전반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IR 피칭 대회까지 진행돼 국내 대표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국내 유일 기후변화 대응기술 전시회인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기후변화 대응 산업의 최신 트렌드 뿐만 아니라, 실제 공기 질 관리, 기후변화 대응 기술, 자원순환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전시된다.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이번에 확보된 국비를 주관전시회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수출상담회 등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지역 주력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산골마을 의료·복지 서비스 ‘전남행복버스’ 확대

도, 오지·도서·산간벽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전파

전남도는 19일 “오지, 도서, 산간벽지 등 지리적 취약지역에 의료·복지·문화 서비스를 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버스는 교통과 의료환경이 열악해 기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맞춤형 원스톱 의료·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는 산간지역 등 100개 마을 방문을 목표로 보건·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복버스는 의료·복지시설 장비를 갖춰 ▲혈압·당뇨검사 ▲인지(치매)검사 ▲체성분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민원·법률상담 서비스를 한다. 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장애인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야외 공간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이·미용 서비스 ▲네일아트 ▲손발 마사지 ▲틀니·안경 세척 ▲체험(만들기)활동 등 서비스도 이뤄진다. /김재정기자

월·수·금, 주 3회 운영하며 지금까지 28개 마을을 찾아가 주민 1천여명에게 의료·복지·문화서비스를 했다. 코로나19로 힘든 날을 보낸 도민에게 버스 이롭도록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파하고 있다.

전남 행복버스는 코로나19 대응에도 앞장섰다. 지난 2월 확진자 급증으로 운영을 중단한 대신 장애인시설 18개소, 노인시설 28개소를 찾아가 신속항원검사(617명)를 실시하고 키트1천273개·마스크3천600개·소독제430개 등 방역용품 지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행정소송 승소

법원, 서진 제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광주시는 19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 사업자 공모와 관련,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주)서진건설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광주도시공사

는 당적수표를 서진건설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지만 행정소송 승소로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어가 있는 어

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진건설은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지난해 8월 광주시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에 서진건설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으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박선강기자

문금주 권한대행 “공무원 선거 엄정 중립”

문금주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무 준수와 선거 행위 금지 등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간부 영상회의를 통해 “이번 선거는 전남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을 뽑는 대규모 선거로 선거운동 기간에 본

격 돌입하면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소속 공무원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도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Canon도트프린터 BJC-5500K 중고 구입합니다.

010-3631-5566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새한신용정보(주)
(재정경제부허가 제2-5호, 금융감독위원회허가 제2000-2호)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료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민사채권 (개인거래채권, 집행권원을 득한 채권)
★상사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부도수표(어음), 용역대금, 상가전세금, 약정금, 임대료, 외상대금, 식대, 관리비, 투자금 등 상법상 상행위로 발생한 모든 금전채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